



**말레이시아관광청 인스타그램 퀴즈 이벤트**

말레이시아관광청 서울사무소는 팬데믹 위기 극복과 말레이시아 여행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퀴즈 이벤트를 열고 있다. 말레이시아관광청은 인스타그램 이벤트에 응모한 사람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10주에 걸쳐 매주 5명씩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등 경품을 증정한다.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말레이시아관광청 서울사무소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말레이시아에 관한 간단한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맞추면 된다. 말레이시아관광청 서울사무소 사하루딘 야하 소장은 “한국 여행객들에게 온라인으로나마 말레이시아를 가깝게 느낄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말레이시아 현지의 높은 백신 접종률에 힘입어 가까운 미래에 말레이시아를 여행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싱가포르 트래블 버블 시행**

11월15일부터 싱가포르 트래블 버블이 시작된다. 이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격리 없이 싱가포르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됐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이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은 것은 사이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협정에 따라 한국인이 싱가포르를 여행할 때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고 입국 직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 7일간 격리가 면제된다. 또 싱가포르를 방문할 때 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 목적 여행이 모두 허용된다.



**체코, 세계관광여행협회 안전여행 스탬프 획득**

체코관광청은 세계관광여행협회(WTTC)로부터 ‘안전 여행’(Safe Travels) 인증을 받았다. WTTC는 관광의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기준에 부합한 국가를 선정해 인증 스탬프를 준다. 안 헤르겟 체코관광청장은 “여행 예약 플랫폼을 확인하면 일부 호텔에 이미 여행 안전 마크가 표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전 여행 마크 획득은 체코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관광청 “여행 재개되면 이곳 놓치지 마세요”**

뉴질랜드관광청은 해외여행이 재개될 때 주목해야 할 여행지 4곳을 골라 ‘시크릿 뉴질랜드-이색 여행지’라는 테마로 소개했다. 뉴질랜드 최남단 도시 인버카길과 성스러운 산 ‘마운트 히쿠랑기’가 있는 북섬의 타이라히티, 예술 감성이 충만한 고장 호크스 베이, 이색 축제가 매력적인 와이타키 등이다. 4곳 모두 과감한 색채와 다채로운 볼거리로 눈길을 사로잡는 이색 여행지들로 손꼽힌다.



**홍콩관광청-CJ ENM, 콘텐츠 제작 업무협약**

홍콩관광청과 CJ ENM이 홍콩 배경의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CJ ENM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홍콩에서 드라마, 버라이어티 TV 프로그램 등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며 홍콩관광청은 촬영 협조 및 자문 등을 제공한다. 또 CJ ENM은 홍콩의 관광지, 상품, 문화 등을 소개하면서 홍콩관광청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관광청 한국 사무소 열어**

사우디아라비아관광청이 최근 서울 강남구에 한국 사무소를 열고 한국 관광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관광업계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관광 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관광청의 이번 한국사무소 설립을 주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관광청 이재숙 한국지사장은 “국내 여행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홍보를 이미 시작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국 관광시장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고 싶다”고 말했다.



**시그니엘 서울·부산, '월드 럭셔리 호텔 어워즈 2021' 동시 수상**

시그니엘 서울과 부산이 월드 럭셔리 호텔 어워즈에서 동시에 상을 받는 겹경사를 누렸다. 2006년 시작돼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월드 럭셔리 호텔 어워즈는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의 우수성을 갖춘 최고의 호텔을 시상하는 상이다. 시그니엘 서울은 아시아 '럭셔리 고메 호텔' 부문, 시그니엘 부산은 아시아 '럭셔리 비치 호텔' 부문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서울신라호텔, 객실서 오페라 공연 감상 투숙상품 출시**

서울신라호텔은 CGV와 손잡고 객실에서 오페라 공연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인 룸 오페라' 투숙 상품을 출시했다. 해당 오페라는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와 로시니의 '도독까치' 등 5개다. 패키지 이용 시 10만 원 상당의 식음 매장 크레디트가 제공된다.



**서울드래곤시티, 가을 호캉스 즐기는 '힐링 힐링' 패키지 출시**

서울드래곤시티는 객실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인 룸 다이닝'이 포함된 객실 패키지 '힐링 힐링'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힐링 힐링' 패키지는 '룸콕' 힐링을 즐기려는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해, 안락한 객실에서 분위기를 돋워줄 샴페인과 페어링 플래터를 마련했다. 객실 1박에 '인 룸 다이닝 샴페인 세트'를 포함했으며, 피트니스 및 수영장 등 부대 시설 이용 혜택도 제공한다.



**울릉~포항 3시간 만에 운항 쾌속 여객선 건조...2023년 9월 취항**

2023년 9월께 울릉~포항 구항 항로에 대형 쾌속 여객선이 취항한다. 울릉군은 공모 절차를 거쳐 대형 여객선 취항 시점부터 20년간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고 대저건설과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실시협약'을 했다. 여객선은 총톤수 2천500t급, 길이 80m, 폭 21m로 승객 950명과 화물 25~30t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다. 만재 때 최대속력이 시속 83.3km(45노트), 평균속력 시속 77.8km(42노트)로 울릉~포항 구간을 3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에어서울, 12월 인천~광 노선 운항 재개**

에어서울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던 인천~광 노선의 운항을 재개한다. 660여 일 만의 운항 재개다. 에어서울은 12월 23일부터 인천~광 노선을 재운항한다. 인천~광 노선은 목요일과 일요일 주 2회 운항한다. 에어서울은 광 이외에도 사이판 등 신혼여행 수요가 있는 휴양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선 운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에어서울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운항 중이던 국제선 19개 노선을 모두 중단한 바 있다.



**파크로쉬, "셰프와 함께 사과를 수확하세요"**

강원도 정선의 파크로쉬 리조트앤웰니스는 셰프와 함께 떠나는 사과 농장 체험을 하고 있다. 파크로쉬는 고객들이 셰프와 함께 리조트 인근의 농장을 찾아 사과나 감자, 토마토 등 제철 채소와 과일을 수확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11월 말까지 진행한다.